

이 자료는 2018년 8월 28일(화) 국무회의 직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

---

2018. 8.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목 차

I. 2019년 예산안 모습 .....	1
1. 기본방향 .....	1
2. 재정총량 .....	2
3.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4
II. 재정혁신 .....	6
1. 지출구조조정 추진 .....	6
2. 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	7
III. 투자의 중점 .....	9
1. 일자리 창출 .....	10
2.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	20
3.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	34
4.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42
5.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	56
<별첨> 분야별 자원배분 .....	63

# I. 2019년 예산안 모습

## 1

## 기본방향

### 1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 선제적으로 투자 확대
-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

### 2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 청년 취창업·미스매치 해소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창출계획(81만개)을 차질 없이 추진
- 데이터경제,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투자와 자율주행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투자 강화
-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 지원

### 3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

-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등 소득분배 개선 지원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집중 투자
  - \* 문화·생활체육시설 및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복지시설 개선, 도시 숲 조성 등
- 인권보장·안전 등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 □ '19년 총지출은 470.5조원 (+9.7%)

- '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총지출 증가율(%): ('06~'07) 6.8, ('08) 8.5, **('09) 10.6**, ('10~'17) 2.9~5.5, ('18) 7.1

-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 이상 수준

### □ '19년 총수입은 481.3조원 (+7.6%)

-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2.1%) 등으로 1.6% 증가

< 2019년 재정운용 모습 >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B)	(조원, %)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총지출	428.8	432.7	470.5	41.7	9.7
· 예산	296.2	298.0	327.3	31.1	10.5
· 기금	132.6	134.7	143.2	10.6	8.0
◇ 총수입	447.2	447.7	481.3	34.1	7.6
· 예산	294.8	295.3	325.9	31.1	10.5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	11.6
· 기금	152.4	152.4	155.4	3.0	2.0

## □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 $\Delta 1.6 \rightarrow \Delta 1.8\%$ )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 유지( $39.5 \rightarrow 39.4\%$ )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28.5$ ( $\Delta 1.6$ )	$\Delta 31.4$ ( $\Delta 1.7$ )	$\Delta 33.4$ ( $\Delta 1.8$ )	$\Delta 4.9$ ( $\Delta 0.2\%p$ )
◇ 국가채무 (GDP 대비 %)	708.2 (39.5)	700.5 (38.6)	741.0 (39.4)	32.8 ( $\Delta 0.1\%p$ )

## □ 중기 재정수지는 $\Delta 3\%$ 이내, 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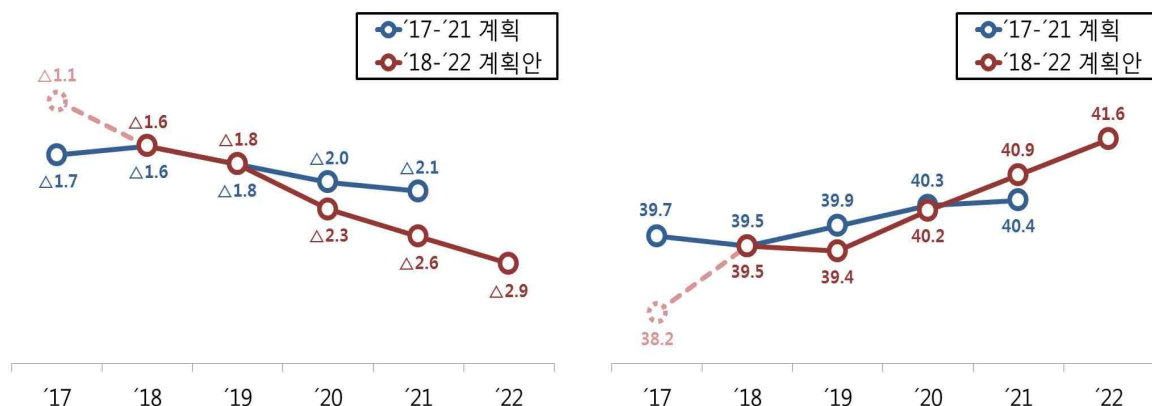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8 \rightarrow 7.3\%$ 로 상향,  
연도별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

\* 연도별 증가율(%): ('18) 7.1  $\rightarrow$  **(‘19안) 9.7**  $\rightarrow$  ('20) 7.3  $\rightarrow$  ('21) 6.2  $\rightarrow$  ('22) 5.9

-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  후반 수준,  
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최근 10년간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0.3 \sim \Delta 2.7\%$

< 관리재정수지 비교(GDP 대비, %) >      < 국가채무비율 비교(GDP 대비, %) >



## 3

##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복지) 최대 증액\* 분야 +17.6조원(144.6→162.2조원),  
총지출 대비 비율 33.7→34.5% 수준

\* 증가율로는 산업분야(14.3%),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 번째(12.1%)

- 기초연금(9.1→11.5조원), 아동수당(0.7→1.9조원) 등이 크게 증액
-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제도 신설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 (SOC) '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

-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증가(27.0→27.9조원)

\* 도시재생(조원): 0.7 → 0.8 / 주택건설(조원): 7.3 → 8.6

□ (R&D) 최초로 20조원 이상 지원(19.7→20.4조원)

-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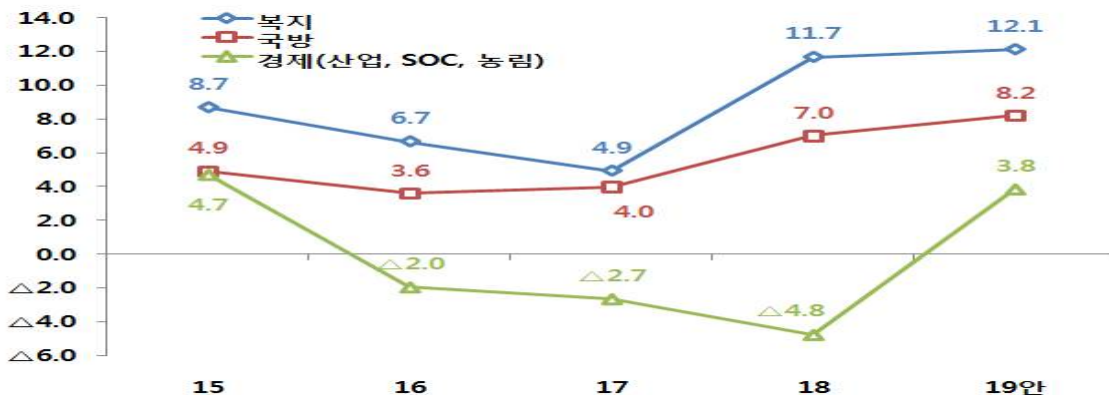
□ (농림) 스마트 팜 등 농업혁신과 농어민 복지 확대(19.7→19.9조원)

-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0.5조원) 감안시, '18년 대비 +0.7조원

□ (문화·환경) '18년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19년에는 처음으로 7조원 수준으로 반등

\* 문화 분야(조원): ('17) 6.9(4.0%) ('18) 6.5(△6.3%) ('19안) 7.1(10.1%)

환경 분야(조원): ('17) 6.9(0.8%) ('18) 6.9(△0.3%) ('19안) 7.1(3.6%)



#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조원, %)

구 분	'18년 (A)	'19안 (B)	증감 (B-A)	
				%
◆ 총지출	428.8 (7.1)	470.5	41.7	9.7
1. 보건·복지·고용	144.6 (11.7)	162.2	17.6	12.1
※ 일자리	19.2	23.5	4.2	22.0
2. 교육	64.2 (11.8)	70.9	6.7	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	55.7	6.2	12.5
3. 문화·체육·관광	6.5 (△6.3)	7.1	0.6	10.1
4. 환경	6.9 (△0.3)	7.1	0.2	3.6
5. R&D	19.7 (1.1)	20.4	0.7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	18.6	2.3	14.3
7. SOC	19.0 (△14.2)	18.5	△0.5	△2.3
8. 농림·수산·식품	19.7 (0.5)	19.9	0.2	1.1
9. 국방	43.2 (7.0)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3.5)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5.1)	20.0	0.9	4.9
12. 일반·지방행정	69.0 (8.9)	77.9	8.9	12.9
※ 지방교부세	46.0	52.8	6.8	14.8

## Ⅱ. 재정혁신

### 1 지출구조조정 추진

#### □ 양적 지출구조조정: 12.4조원 (목표 10.9조원 대비 +1.5조원)

- '18년에 이어 '19년 예산안도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12.4조원 구조조정

- \* '18년 구조조정 실적 10.4조원 대비 2.0조원 추가 절감

- '18년 구조조정 사업은 감액 수준 유지(10.4조원)

- \*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경우에만 증액

- 그 외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절감(2.0조원)

< '18년 대비 2조원 감액 내역 >

-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감액: 0.8조원
-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 미흡사업 감액: 0.6조원
- 기타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 0.6조원

#### □ 질적 지출구조조정

- 지원방식 개선, 사업통폐합 등 재정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지출혁신 1.0」 33개 과제('18.1)를 '19년 예산안 반영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역축제·행사 지원줄임제 도입 대학재정지원사업 간소화(5→1개) 등

-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구조 전환 및 재정운용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지출혁신 2.0」

- \* 기금·특별회계 재원 효율적 활용,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신속화 등



### □ 국민참여예산 '18년 대비 약 2배 확대 (422→835억원)

- 국민 제안에 대해 각 부처, 민간전문가의 구체화 후 예산국민참여단 평가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별(39개 사업, 835억원)

- 일자리정보 플랫폼기반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 (65억원)
-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23억원)
- 방사선 인체 건강위험성 평가 사업 (34억원)
-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17억원)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도입 (13억원)

- 부처가 직접 발굴한 국민참여 성격의 사업\*도 반영

\* 식·의약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식약처, 5억원),  
미세먼지 저감·생활안전 등 국민공모 R&D (93억원) 등

### □ 재정정보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제고

- 공개대상 정보의 수준을 심화하고(단위사업→세부사업) 공개주기를 단축(월별 집행정보→일별 집행정보)

\*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 d-Brain 사용기관 :18.7월, 미사용기관 :19.7월 시행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에서 중앙정부 쏠 부처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교육지자체 재정정보도 일괄공개

## < 예산사업 분류체계 정비 >

### ① 추진 배경

-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환('07년) 이후의 국가정책 방향 전환 및 조직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 거의 유지  
⇒ 정책 목적과 무관한 분류 체계 및 조직-예산과목간 불일치 누적

### ② 주요 내용

- '고용' 부문 신설 등 정책 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
- 중기부 신설 등에 따른 정부조직과 예산과목간 불일치 해소
- 철도 부문과 도시철도 부문을 철도 부문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 부문·프로그램은 통폐합



### ③ 기대 효과

- 정책 목적 및 행정 조직에 연계한 예산사업 분류 체계화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민의 정책 체감도 증대
- 불필요한 재정 칸막이 제거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증대

### Ⅲ.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일자리] 청년, 신중년, 사회적경제, 해외 일자리 지원</li> <li>· [재정지원 일자리] 일자리 예산 규모,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li> <li>·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확대</li> <li>·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 강화, 선취업·후진학 지원</li> </ul>
경제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투자 확대] 기초·원천연구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li> <li>·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 +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li> <li>· [혁신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모험자본 확충</li> <li>· [주력산업] 산업단지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li> </ul>
사회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li> <li>·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안정, 역량 제고</li> <li>·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li> </ul>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li> <li>·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지원</li> <li>· [미세먼지 대응]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li> <li>· [사회적가치 제고 투자 확대]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li> </ul>
안심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국방 역량강화] 핵심전력 투자 확대, 복무여건 개선</li> <li>· [안전투자 확대] 재해·재난 예방, 공공의료 확충, 먹거리 안전 강화</li> <li>·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외교역량 강화] 남북협력 확대,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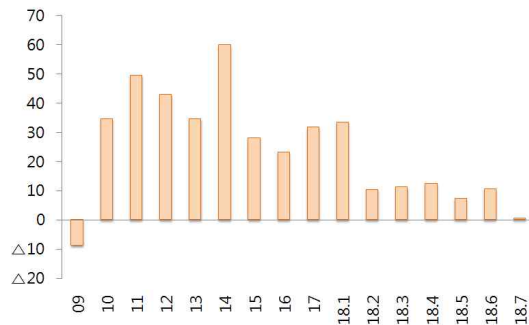
## ◇ 현황

-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청년실업률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고용문제 심각

\*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보조지표3(%):  
(‘15.7) 22.6 → (‘16.7) 21.6 → (‘17.7) 22.6 → (‘18.7) 22.7

-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도 심화

&lt;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gt;



\* 통계청

<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  
(대기업정규직 = 100)

\* 고용노동부

## ◇ 재정지원 방향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
- 양질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역량 제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저변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예산 23.5조원(+4.2조원, 22.0%)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
  - 여성친화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9.4만명 창출
  - 보건·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 다방면으로 일자리 확대
- 공무원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무원 21만명 증원 및 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 전환

## 직업훈련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 전직실업자, 폴리텍 고학력 청년, 中企 근로자 등 대상
-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직업훈련 및 수요자 맞춤형 훈련 지원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1]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 청년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中企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속 지원
- 청년전담 취업 전달체계로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본격 운영  
(억원)

구 분	'18년 (추경, 순증)	'19안	비고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20 (+1,487)	7,135	· 9→18.8만명(계속 9 + 신규 9.8)
· 청년내일채움공제	3,554 (+704)	10,374	· 11→23만명(계속 11 + 신규 12)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897)	2,207	· 4→9만명(계속 4 + 신규 5)
· 중기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 (+247)	831	· 융자 한도 확대(3.5→5천만원)
· 산단교통비 지원	- (+488)	944	· 산단 중소기업 재직 15.4만명, 월 5만원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 (+76)	52	· 지자체 운영중 청년공간 20개소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

-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
  - \*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취약계층 직업훈련 신설 등
  - \*\* 신중년 특화 폴리텍 캠퍼스(10→14개소),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3→5백명)

-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확대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대상 확대 등

\*\*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채용시 장려금 지급,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고
·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678	949	· 최초 실업자 2.9만명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6만명 신규 지원
·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	115	402	· 임금근로자전환 8천→2만명 · 재창업 지원 2.8→6천명
·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86	274	· 3→5천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80	· 2.5천명
·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	265	· 조선 300명, 자동차산업 800명

## □ 양질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역량 제고

-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 확대**(5,607→6,357명)

\* IDB · AfDB · ADB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130명)

- 한인네트워크 활용 현지채용(200명) 및 K-Move 트랙 II\* 확대  
(추경 300→500명)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 (트랙 I) 단기 3~6개월 미만, 장기 6~12개월 미만

(트랙 II) 1년이상 장기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유도

##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저변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대폭 확대(2,159→3,685억원)
  - 사회적기업(550→1,000팀), 협동조합(30→60팀) 등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6→10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등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멘토링 등 성장 지원
  - 소셜 임팩트 펀드(500억원), 신보 사회적경제 보증(200억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신설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사회적경제	2,159	3,685	'18년 대비 70.7% 증액
· 창업 지원	195	354	· 사회적기업 550→1,000팀 · 협동조합 30→60팀
· 인프라 구축	31	83	· 성장지원센터 6→10개소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개소 신설
· 금융 지원	-	700	· 소셜 임팩트 펀드 500억원 · 신보 사회적경제 보증 200억원

## [2]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 일자리 예산은 '18년 대비 22.0% 늘어난 23.5조원

- 일자리 예산은 '19년 23.5조원으로 '18년대비 +4.2조원
  - \* ('14) 13.1 ('15) 13.9 ('16) 15.8 ('17) 17.1 ('18) 19.2 ('19안) 23.5조원
-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효율성 및 고용창출효과 제고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지원'과 유사·중복으로 통폐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복지부) 중 중복 부분을 장애인취업지원(고용부)으로 이관

##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

-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12→13.6만명)
  - \* 아이돌봄(2.3→3만명), 노인돌봄(3.6→3.8만명) 등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 추가 확충(158→163개소)
-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신설)
-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 직접일자리(1.7→2.0만명)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확대(2.5→5천명)
    - \*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하여 현장훈련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등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강화
    - \* 근로지원인(1,200→3,000명), 높낮이 조절 작업대 등 보조공학기기(8천→1만점)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센터 확충(7→13개소)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여성	· 아이돌봄서비스	1,084	2,245	· 일자리 수 2.3→3.0만명
	· 노인돌봄서비스	1,890	2,382	· 일자리 수 3.6→3.8만명
	· 장애인활동지원	6,907	9,685	· 일자리 수 6.2→6.8만명
· 노인일자리		6,349	8,219	· 51→61만개(사회서비스형 2만개 신설)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	957	1,208	· 지원인원 1.7→2만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85	555	· 지원인원 1,200→3,000명 · 월 지원시간 115→125시간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96	182	· 7→13개소



## □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만명 확대

-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 컨설팅 지원(8개소, 개소당 1→3억원), 지역투자보조금 지원한도 상향(60→100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추경 +831)	2,686	· 3만명
· 지역일자리컨설팅	8	24	· 8개소, 개소당 1→3억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765	1,411	· 기업별 지원한도 인상(60→100억원)

##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 사회서비스 일자리 9.4만명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9.4만명 창출

-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은 최대한 추진(8만명)

- 복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보조교사(1.5만명), 아이돌보미(0.7만명) 등
- 보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0.6만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0.2만명) 등

-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 사회서비스 확대(1.3만명)

- 안전: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성폭력 피해 지원(319명)
- 여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223명),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86명) 등
- 생활편의: 중앙·국회도서관DB구축(348명), 납세자지원센터(250명) 등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원 설립(880명)

## □ 공무원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19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2.1만명 증원(인건비 0.4조원)

\* 증원계획(17.4만명): ('17) 1.2 ('18) 2.7 (**'19안) 3.6 (국가2.1+지방1.5)** ('20~'22) 9.9

- 교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3.3천명 증원
- 경찰: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 5.7천명 증원
- 생활.안전: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6천명 증원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7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계획('20년까지 20.5만명): ('17) 7.4 ('18) 7.7 (**'19안) 1.7(국가 0.1)** ('20) 3.7

## [4] 직업훈련 강화

###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확대(700→1,300명)

- 폴리텍 내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 확대(545→775명) 및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폴리텍 학과 신설 및 개편\*

\*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학과개편(11개) 및 4차 산업혁명 학과 신설(3개)

- 中企 근로자 대상 장기(1개월 이상) 유급휴가 훈련시 훈련비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고급훈련 지원 확대(2.9→3.3만명)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154	219	· 700→1,300명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27	39	· 545→775명
· 중소기업 근로자 고급훈련	43	50	· 2.9→3.3만명

## □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신규 지원(13.6만명, 246억원)
- 내일배움카드를 “Positive→Negative”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고, 수요자 맞춤형 훈련 지원 강화(47→52만명)

\* (현행) 중기 근로자,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등 →  
(개선) 전체 근로자 대상,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제외

##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신설(15개교)
- 대학 및 전문대학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확대(12→26개교), 신기술 교육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20→30개소)
- 취업장려금(2.6만명), 주경야독장학금(9천명) 등 고졸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활동 지원

\* 취업장려금: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취업시 1인당 300만원 지급  
주경야독장학금: 대학에 진학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학기당 평균 320만원 지원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고
○ 선취업·후진학	1,965	3,467	'18년 대비 76.4% 증가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	150	· 15개교, 교당 10억원
·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113	241	· 학교수 12→26교
·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80	120	· 20→30개소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780	· 수급자수 2.6만명
· 주경야독장학금	-	576	· 9천명, 학기당 평균 320만원
· 기타	1,772	1,600	· 비진학일반고특화과정 798억원 등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추가고용	4.5만명	18.8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23만명
신중년 재취업 지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운영	10개 과정	14개 과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500명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3천명	5천명
해외 일자리	국제기구 연계 기술인력 해외취업 지원	-	130명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550팀	1,000팀
여성 일자리	여성친화적 일자리	12만명	13.6만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개소	163개소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51만명	6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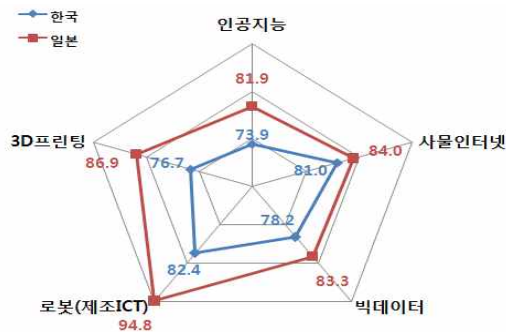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1.7만명	2만명
	장애인 근로지원인	1,200명	3,000명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7개소	13개소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	3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4만명	9.4만명
	공무원 증원	2.7만명 (국가 1.5만명)	3.6만명 (국가 2.1만명)
직업훈련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	2.9만명	3.3만명
	사회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신규)	-	13.6만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1인당 300만원 2.6만명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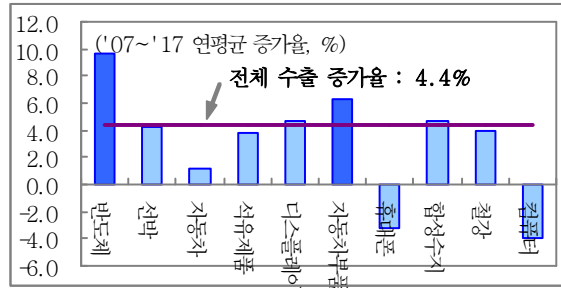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쟁력은 미국의 70~80% 수준에 불과, 기술·산업별로 2~4년 격차
- 반도체 등을 제외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업종의 대내외 수요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산업 구조 취약성 심화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 >  
(미국 = 100)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 최근 10년간 주력업종 수출 추이 >



\* 관세청

## ◇ 재정지원 방향

## R&amp;D 투자 확대

- 최초 20조원 돌파로 혁신성장 본격화
- 기초 연구 및 미래 원천기술 선제 투자
-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연계 R&D 투자 확대

##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 양성
  -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분야 지원 확대
- \* 데이터, AI, 수소 경제
-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혁신창업 활성화

-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확충
- \* 창업초기 → 성장 → 도약 · 재창업
- \* 펀드 출자, 융자, 보증 등 활용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노후 산업단지 재생·고도화 지원
-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구조조정 업종 재기 지원

## [1] R&D 투자 확대 [19.7→20.4조원, +3.7%]

### □ 최초 20조원 돌파로 혁신성장 본격화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R&D 예산 대폭 증액

\* R&D예산: ('16) 19.1 → ('17) 19.5 → ('18) 19.7 → ('19안) 20.4조원(+3.7%)

-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일몰 △0.7조원)을 통해 효율화 병행

### □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자율·창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확대 (1.4→1.7조원)

\* 기초연구 수혜대상 인원: ('18) 1.7만명 → ('19안) 2.1만명, +0.4만명

\* 「신진연구·생애첫연구 → 중견연구 → 리더연구」 연구단계별 체계적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확대(1.5→1.8조원)

\* 지능형로봇·클라우드·5G 등 기초·핵심기반기술(0.7→0.8조원),  
스마트의료 등 융합기술(0.7→0.9조원)

- 지역이 원하는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 지원

\* 의약·바이오(대구·충북·경북, 404→542억원), 탄소나노산업(강원·전북, 7→37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지원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18) 3.5 → ('19안) 3.7

##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연계 R&D 투자 확대

### ○ 미세먼지 및 재난안전 분야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 R&D 추진

\* 미세먼지 공모사업(신규, 51억원), 생활안전 공모사업(신규, 42억원)

### ○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식품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 방사선안전소재(신규, 11억원), 페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신규, 76억원)

### ○ 국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의료서비스 개선 R&D 강화

\* 돌봄로봇 기술개발(신규, 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신규, 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신규, 10억원)

(조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R&D 예산	19.7	20.4	'18년 대비 3.7% 증가
· 기초·원천연구	1.4	1.7	· 신진·중견·리더연구 7,280→8,794억원 · 생애기본연구 450→1,340억원
· 3대 전략투자 + 8대 선도사업	1.1	1.4	· 데이터·AI경제 3,467→4,211억원 · 수소경제 383→796억원 · 혁신인재양성(신규) 280억원 · 8대 선도사업 7,140→8,944억원
· 주력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4.9	4.8	· 위기산업·위기지역 지원(신규) 557억원 · 창업·재창업기업 R&D지원 2,773→3,778억원
· 삶의 질 향상	1.0	1.2	· 재난안전 대응 0.9→1.0조원 ·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0.1→0.2조원
기타	11.3	11.3	· 국방R&D 2.9→3.1조원 · 교육R&D(기초연구 제외) 1.3→1.4조원 · 출연연 3.5→3.6조원



## [2]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3.0 → 5.1조원)



### □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 양성

#### 데이터·AI 경제

#### 한국형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816억원)
  - \*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맵 구축 등 지원
- 국내 환경에 맞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방안 연구(10억원)
- 양자컴퓨팅·지능형반도체·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확대(297→763억원)
  -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신규, 300억원, 과기부·산업부 공동 추진)
- 데이터 보안성·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실증 지원 (40→153억원)
  - \* (공공분야)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등 (14개 분야)
  - (민간분야) 투명한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4개 분야)

- 중소·스타트업 및 일반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통한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 지원(59→1,024억원)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급(1,640개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200개사)
    - 시내버스·도서벽지 공공장소 등에 공공 Wi-Fi 보급을 확대하고(3만개소), 공공 Wi-Fi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 구축(1,285개사)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의 해외 사무공간 공유 시스템 및 국내 공공기관 보유 자원 개방 공유 시스템\* 구축(9→30억원)
- \* 회의장·주차장·교육프로그램 등 예약활용 시스템

## 수소 경제

##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

-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 확대(422→901억원)
  - 수분해·개질 등 대량 수소생산 기술, 충전소 안전 및 수소 액화·이송 등 핵심기술 개발(372→730억원)
  - 수소차 가격저감기술, 수소열차·선박 기술개발 확대(11→117억원)
-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신규, 170억원)
  -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에 수소 생산기지 구축(3개소, 150억원), 수소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하는 수소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20억원)
- 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130→2,000대), 수소버스 시범 도입(32대),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30기)

## 혁신인재 양성

##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방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특화 글로벌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 (Innovation Academy) 설립(신규, 350억원)
  - \* 국내외, 학력불문 인재 선발, 최고 강사진·교육장비 확보, 해외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에 석·박사를 파견, 실전 역량을 배양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신설(신규, 250억원)
  - \* 석박사급 고급인력 500명 선발 + 해외 프로젝트 및 공동 R&D 참여
- 기존 교육을 기업수요 기반 프로젝트 교육으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2만명 양성
  - AI 대학원 신설(3개소), SW 중심대학 확대(25→35개소) 등 석·박사과정 중심 고급인재 양성(1.2→1.4만명)
  - 민간기업·대학 등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실무교육 (240→280억원)을 통해 실무인재 양성(0.5→0.6만명)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양성	8,700	15,137	'18년 대비 82.0% 확대
· 데이터·AI경제	5,799	10,493	· 빅데이터 인공지능·블록체인 397→1,859억원 · 데이터 격차해소+공유경제 68→1,324억원
· 수소경제	422	1,131	· 수소 밸류체인별 R&D·실증 372→730억원 · 수소 생산거점 구축(신규) 230억원
· 혁신인재양성	2,517	3,512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신규) 350억원 ·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신규) 250억원

## □ 8대 핵심 선도분야 지원 확대

###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인프라 + 전기차 보급 확대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177→188억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구축(140→329억원)
-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승용차 2→3.3만대, 버스 150→300대)하고,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 신규 보급(5,000대)

### 드론

공공수요 창출 + 상용화 인프라 구축

- 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임무 수행 드론 구매 확대(78→956대)
- 전용 시험비행장(5개소) 및 실기시험장(1개소) 구축, 인증센터 신설(신규, 35억원) 등 드론 상용화 기반 구축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보급 확대 + 에너지신산업 고도화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기술(960→1,328억원) 및 신재생 에너지에 적합한 전력 인프라 개발\*
- \*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신규, 68억원),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신규, 27억원) 등
- 영농형 태양광 등 발전설비 보급(5.5→9.4만호),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신규, 20억원) 등으로 신시장 창출 지원

### 바이오 헬스

의료 빅데이터 활용 + 의과학자 양성(0.27→0.35조원)

-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40개), 정밀의료 코호트 시범구축\*(500명) 등 정밀의료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95명, 75억), 병원-기업 공동 활용 위한 '개방형 현장실험실' 구축(5개소, 40억)

## 스마트 공장

### 보급 확대 + 제조 핵심기술 개발

- 스마트공장 보급(2,100→3,000개소)\* 및 금융지원(3,300→5,000억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실습장 지원(4개소, 신규 121억원)
  - \* 단가 인상 병행(보급: 50→100백만원, 고도화: 100→150백만원)
-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신규, 62억원)
  - \* 센서·통신기기·제어기 스마트공장내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 스마트 시티

### 시범도시 조성 + 선도 서비스 모델 확산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조성을 본격 추진(신규, 265억원)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15개소)
  - \* 119·112·재난·복지 등 종합데이터 통합연계·관리 플랫폼

## 스마트 팜

### 스마트 영농 혁신거점 구축

- 스마트 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등 조성
  - \* 실습농장, 임대형 팜, 테스트베드 등 핵심시설 집적화 지원

## 핀테크

### 핀테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핀테크 기업의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비용(40개사) 지원 및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마련(신규, 80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 고
○ 8대 핵심 선도사업	21,686	35,904	'18년 대비 65.6% 확대
· 미래자동차	5,907	8,276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개발 177→188억원
· 드론	698	1,213	· 공공분야 드론 구매 8→236억원
· 에너지 신산업	5,971	8,753	· 신재생 에너지 보급금융지원 3,660→5,553억원
· 바이오 헬스	2,718	3,567	·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플랫폼(신규) 85억원
· 스마트 공장	4,446	10,066	·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782→2,661억원
· 스마트 시티	767	1,493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265억원
· 스마트 팜	1,144	2,425	· 스마트 팜 실증단지 조성(신규) 145억
· 핀테크	36	111	· 핀테크 지원사업(신규) 80억

### [3] 혁신창업 활성화

#### □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예비 및 초기 창업자(6개월미만) 1,500팀 대상 최대 1억원 오픈 바우처 지원
  - 생활혁신형 창업\* 3,000팀 대상 최대 2천만원 성공불 용자
- \* 생활주변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창업자
- 창업성공패키지(525→1,000팀), TIPS\* 지원(195→250팀) 확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스타트업에 1억원 투자시 정부가 사업화·해외진출·R&D·엔젤펀드 매칭 등 총 9억원 지원
-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강화(1,000→1,200팀), 재도전 성공패키지(294→350팀) 확대

####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확충

- M&A·회수\*(1,500억원), 해양 신산업(200억원), 도시재생(100억원) 펀드 등에 신규 출자
- \* M&A 자금 지원 및 타 펀드 보유 주식 매입 등으로 회수 시장 활성화
-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확대(1,700→2,000억원)하고, 일자리창출촉진 자금 신설(3,000억원)
- 사회적경제, 항공부품, IP(지적재산) 분야 전용 보증 약 6,000억원 수준 신규 공급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혁신창업 지원	3.3조원	3.7조원	'18년 대비 12.1%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540	972	· 지원팀 525→1,000팀
· 창업사업화 지원	1,535	2,950	·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1,01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 500→840억원
·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2,000	2,500	· M&A·회수펀드 1,500억원 등

#### [4] 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 노후산업단지 재생·고도화 지원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확대
    -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재정비 사업을 조기 완공 위주로 대폭 확대(신규 5개 등 23개 산단, 215→600억원)
    - 민간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상가 등을 복합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1.5%) 지원(504억원)
  -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 조성
    -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500→2,500억원)하고, 민간의 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출자비율을 상향\*
- \* (기존) 전국 20% → (개선) 수도권 20%, 전국 30~50%
- 문화·체육시설, 기숙사, 복지센터 등 소규모 근로자 복합 편의시설 건립 지원(신규 13개)
  -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매입해 창업·중소기업용 임대 공장으로 전환토록 리모델링비 지원(신규 16개, 350억원)

##### □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혁신성장센터 구축

- 15개 산단에 산학융합형 공학관, 기업연구소 건립 및 중소기업 연계 R&D 사업 지원
- 도시첨단산단에 스타트업 입주,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센터 4개소 신설(82억원)

## □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지방산단으로 공장 신·증설, 이전·유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개소당 60→100억원) 및 규모 확대(765→1,411억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투자금액의 30→40%) 및 규모 확대(60→500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고
○ 산업단지 지원	1,641	6,522	'18년 대비 297.4% 증액
· 노후산단 재생보조	215	600	· 23개 산단내 도로주차장·기반시설 정비
· 노후산단 재생용자	-	504	· 주차장·복합타운 등 투자자금 용자
· 산단환경개선펀드 출자	500	2,500	· 13개 산단별 평균 200억원 출자
· 소규모 복합복지센터	-	350	· 13개소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400	· 16개소
· 산학융합지구 조성	101	150	· 13→15개소
· 도시첨단 용지비 보조	-	82	· 혁신성장센터 건립시 용지매입비 지원 (4개소)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765	1,411	· 개별기업당 한도 상향(60→100억원)
· 외국인 투자유치	60	500	· 외국인투자금의 30→40%



##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40억원), 무역정보 빅데이터 시스템(26억원) 구축, 글로벌 창업 거점센터 조성\*(3개소)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창업, 투자유치 등 지원
-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개선\*(4→9개단지), 소공인 공동활용 생산장비 확충(8개소)  
\* (기존) 폐수시설 등 생산설비 → (개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시설 추가
- 중소기업 新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평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50→161억원) 및 지적재산권 사업화 자금 지원(100억원)
-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 지원(50명, 10억원), 중소·중견기업간 협업기술 개발(신규, 10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30	50	· 시설구축 4→9개단지
· 신산업 생태계 조성	50	161	· 바이오·나노 분야 50→78억원 · 비즈니스 센터 구축(1개소)
· 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	10	· 석박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 50명

## □ 구조조정 업종 재기 지원

- 조선 등 위기업종 부품기업의 업종전환용 R&D 지원(334억원) 및 선박 신규건조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신규 41척 이상, 757억원)
- 산업구조 개편 및 혁신성장 정책자금 추가 공급(산은출자 0.5조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위기업종 R&D	-	334	· 자동차 250억, 조선 84억
· 선박신조 추가 지원	-	757	· 해경 17, 소형유조선 16, 예인선 2척 등
·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	5,000	·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3대 전략 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	10개소
	블록체인 기술 실증	-	(공공) 14개 (민간) 4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	(구매) 1,000개 (가공) 640개
	공공 Wi-Fi 구축	4,200개	29,800개
	수소 생산기지 구축	-	3개소
	수소버스 시범도입	-	32대 ( 시내버스 30, 경찰버스 2)
미래 핵심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1.6만명	2만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	500명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	500명
8대 핵심 선도분야	전기차 보급지원	2만대	3.3만대
	공공분야 드론 구매	78대	956대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	609개소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	95명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2,100개소	3,000개소
	스마트 시티 챌린지	-	6개소
	스마트 팜 혁신밸리	2개소	4개소
	핀테크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	40개사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혁신창업	창업성공패키지	525팀	1,000팀
	TIPS 확대	195팀	250팀
	창업도약패키지	1,000팀	1,200팀
	재도전 성공패키지	294팀	350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재생 보조	18개소	23개소 (신규 5개)
	노후산단 재생 융자(신규)	-	6개소
	산단환경개선펀드	6개 산단	13개 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신규)	-	16개소
	소규모 복합복지센터(신규)	-	13개소
중소·중견 기업 성장	수출지원 확대(신규) (글로벌 거점 지원센터)	-	3개소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특화단지 시설구축)	4개 단지	9개단지 (신규 5개)
	중소·중견 기술지원(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	50명
구조조정 업종 재기	위기업종 R&D(신규)	-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
	선박건조 추가 지원(신규)	-	41척 이상

## ◇ 현황

## ○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 등 분배상황 어려움이 심화

\* 5분위배율(1/4분기 기준): ('16)5.02 ('17)5.35 ('18)5.95('03년 이래 최고치)

- 특히, 고령층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노인빈곤율(%,'15): (韓) 45.7 (OECD평균) 12.5

##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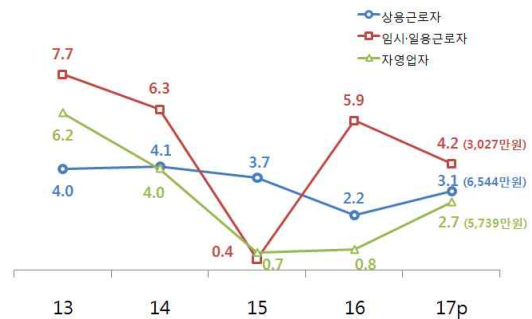
\* 자영업자 비중(% , 한국('17년) 외 '16년): (韓)21.3 (美)6.4 (英)15.4 (日)10.6 (獨)10.4

&lt; 지니계수 추이 &gt;



\* 통계청

&lt; 종사영역별 소득 증가율(전년비, %) &gt;



\* 통계청

## ◇ 재정지원 방향

##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

-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 \*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예술인·체육인 지원 강화

## 영세소상공인지원강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2.97 → 2.82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지원
  - 수수료부담 경감, 자금지원, 온누리 상품권발행 확대 등
- 경영역량 제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원
  - 교육, 판로개척 지원
  - 재기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허용 추진
-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 [1] 저소득층 · 취약계층 지원

### □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14→18세) 및 지원금액 인상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
  - 한부모 가족시설 125개소에 아이돌보미 2명씩 무상파견
-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퇴소 2년 미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월 30만원, 4,900명)
  - 주거지원(240호)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 자립 지원 강화
- 성인 발달장애인(1,500명)의 바깥활동을 위해 주간활동 도우미를 지원하고, 자조모임 · 동료상담 등 부모 멘토링(3,400명) 도입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고
· 한부모 아동양육비	907	2,077	· 금액: 13→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35만원) · 대상: 14→18세 미만(8.3→11.5만명)
·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	-	3	· 한부모 자격확인 가구 +1,460명
· 한부모 · 보호종료아동 생계급여제도개선	-	57	· 30세 미만 한부모 · 보호종료아동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99	· 보호종료 2년내 아동 4,900명, 월 30만원
· 경계선지능아 자립지원	-	13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880명
· 학대아동보호시설	193	222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3→67개소
· 발달장애인지원	86	346	· 주간활동 서비스(1,500명, 주 20시간) · 부모 멘토링(3,400명)
· 어린이재활 병원·센터	8	35	· 중증장애인 1→5개소(병원+2, 센터+2)
· 노숙인 특화자활	-	12	· 거리 노숙인(200명) 심리치료, 일자리 제공

## □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0→12.7조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22.1월→'19.1월)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 저소득층은 기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21년→'19.4월)
  - 소득하위 20% 어르신(약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19.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1만명) 및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2년간 한시 유예(18.10.~21.4.)
    - ※ '14.7월 기초노령연금 인상시(10→20만원) 2년간 의료·장제급여 한시 유예
  -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약16만명)에게 '19.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우수인재 장학제도 신설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422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년	비고
· 생계급여	3.7조원	3.8조원	· 81→87만 가구
· 의료급여	5.3조원	6.4조원	· 150→152만명
· 주거급여	1.1조원	1.7조원	·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 자활사업	0.4조원	0.5조	· 단가 월 102→129만원, 4.65→4.8만명 ·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 30% 공제)
· 기초연금	9.1조원	11.5조원	· 소득하위 20%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0.6조원	0.7조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 등	832	937	· 연탄쿠폰(313→406만원) 냉방기기 보급(3만명)
·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170	422	· 3천명 대상 장학사업 신설

##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6.25 자녀수당 등 3.5% 인상
  - \*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 2% 추가인상,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대폭 추가인상(12.4→25.7만원/월, 제적자녀의 10→20%)
- 부양가족수당(미성년자녀),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5만원 인상
- 중앙보훈병원 내 치과병원 신축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패달아주기 사업 추진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32,654	33,649	· 3.5% 공통인상 등
· 생활조정수당	164	260	· 월 16~27→21~32만원
· 치과병원 신축	-	18	· 설계비 등 반영
·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	62	· 상이군경, 고령참전자 20.8만명

## □ 예술인·체육인 지원 강화

- 예술인이 창작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확대(4.5→5.5천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105억)
-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2,600→2,740명)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577→800명) 확대 배치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예술인창작준비금	135	165	· 4,500→5,500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05	· 1,000명
· 생활체육 지도자	353	379	· 2,600→2,740명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89	119	· 577→800명





## [2]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 □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편성(2.97→2.82조원)

- 기준보수 인상(190→210만원),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
-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3조원 지원

-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Zero-pay) 구축·확산(100만점포) 지원
- 기업은행 자본확충(0.2조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 확대(2조원)
- 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로 자금지원 강화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두 배 확대 지원(730→1,772억원)

### □ 경영역량 제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0.5조원 지원

- 경영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안정적 성장 지원
  -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대상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 신설(1만명)
  -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 지원(500개 기업, 75억원)
- 폐업시에도 원활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교육을 확대하고(7,500→20,000명), 전직 장려수당 인상(최대 75→100만원)
  -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월소득 154만원(1등급) → 211만원(4등급) 이하, (지원기간) 2→3년 (보험료 지원) 1·2등급 50%(18.9월~), 3·4등급 30% '19년 신설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영세소상공인 지원	2.1조원	2.8조원	'18년 대비 33.3% 증가(일자리안정자금 제외)
· 소상공인 융자	16,025	19,500	· 경영안정자금 +0.35조원
· 소상공인 성장지원	527	671	· 예비창업자 교육 신설 등
· 소상공인 재기지원	127	431	· 임금근로자로 전환, 재창업 지원

### [3] 고용안전망 강화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위해 7.4조원 투자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6.2→7.4조원)
  - 65세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 요건 완화
  - \* (65세이상)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 가능  
(초단시간 근로자)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24개월간 180일 이상

####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8년 대비 50% 이상 투자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00→237만명)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 추진
  - \* 금년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法 개정 추진 계획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자 대상 구직 지원사업 신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10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신규 지급(2.4만명)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고용안전망 강화	7.1조원	9.0조원	'18년 대비 26.7% 증가
· 실업급여	6.2조원	7.4조원	· 지급액 확대(평균임금 50→60%) · 지급기간 연장(90~240→120~270일)
· 사회보험 사각지대	0.9조원	1.4조원	· '18대비 +51.8%(200→237만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19	·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213	·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저소득층	생계급여(4인기준)	월 최대 135.6만원	월 최대 138.4만원
	에너지바우처	월 31.3만원	월 40.6만원
아동	아이돌봄 지원	6.5만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9만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양육비	8.3만명(14세미만), 월 13~18만원	11.5만명(18세미만), 월 20~35만원
	온종일 돌봄	33만명	37만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4,900명 (24세 미만, 보호종료 2년 內 아동)
노인	기초연금 인상	517만명, 월 25만원	539만명 월 최대 30만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4,800명	6,900명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7.1만명	7.8만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500명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1인 영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2등급 50%	1~2등급 50% 3~4등급 30%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조원	2조원
고용안전망	실업급여	평균임금 50% 90~240일	평균임금 60% 120~270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0만명	237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0만명 월 50만원(6개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2.4만명 월 30만원(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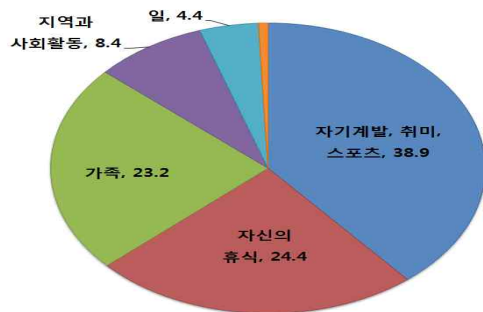
## 4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 현황

- 일과 생활의 균형, 휴식이 있는 삶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은 부족
- 국정과제로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 국민생활 참여율 '22년 64.5% 달성을 제시

< 여유 시간에 대한 활용 >



\* (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18.5월)

< 도서관 1관당 인구수 >



### ◇ 재정지원 방향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 총 8.7조원 투자(전년대비 +2.9)
-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1.6조원
-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에 3.6조원
-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에 3.4조원

#### 저출산 대응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산모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원 및 돌봄 확대를 통한 육아 지원
- 일·생활 균형 지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확대

####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대응에 1.7조원 투자
  - 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투자 지속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확대

#### 사회적 가치 투자 확대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사회적 가치 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총 8.7조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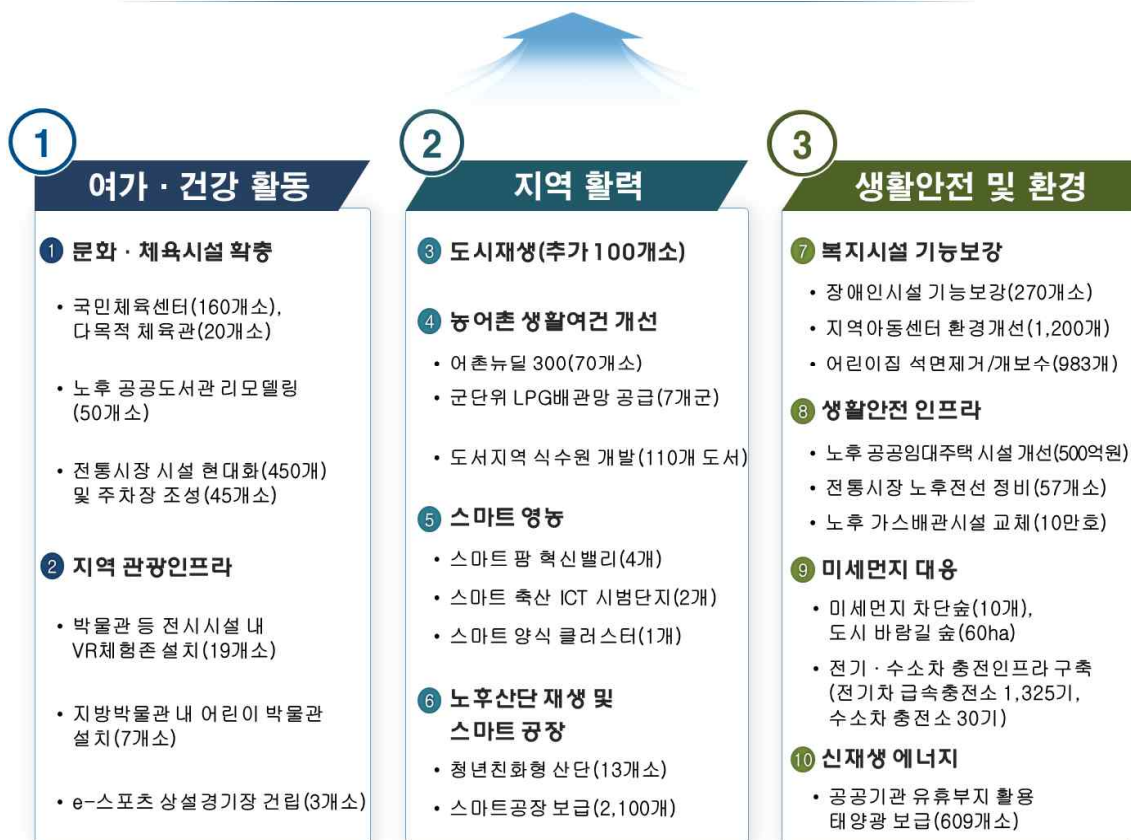
- 관계부처, 지자체의 의견 수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집중 투자(5.8→8.7조원)

- \* 선정기준: ①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②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③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 생활 SOC 투자로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기대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1.6조원 투자

###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1.1조원

-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신규 건립(생활 30, 장애인 30, 근린생활 100)
- 노후 공공도서관을 북카페형·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50개소)하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
- 혁신도시, 접경지역, 세종시에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 18개소 건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96→450개) 및 주차장 확충(신규 45개소)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0.6조원	1.1조원	'18년 대비 85.1% 증가
· 국민체육센터	139	1,900	· 체육센터 신설 20→160개소
· 체육진흥시설 지원	1,256	2,338	· 운동장 49→145개 · 체육관 136→214개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702	819	· 50개소 리모델링
·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10	233	· 16→243개소
· 커뮤니티센터 건립(세종, 혁신도시, 접경권)	364	669	· 세종시 5개소, 혁신도시 10개소, 접경지역 3개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1,821	2,652	· 시설현대화 296→450개소 · 주차장 신규지원 45개소

##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0.6조원

- 박물관 등 19개 전시기관에 VR·AR 체험관 신규조성하고, 어린이 박물관 7개소 구축
- 전국 권역별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 신규 구축
-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 신규 설치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지역 관광인프라	0.4조원	0.6조원	'18년 대비 42.0% 증가
· 박물관 등 VR체험존	-	305	· 박물관 등 19개 전시기관
· 어린이박물관 구축	-	34	· 7개소 구축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	66	· 권역별 3개소 설치
· 국립공원 내 야영장 정비 등	109	266	·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신규 설치, 탐방안내소 1개소 신축
· 각종 전시관 개편	92	251	· 독립기념관 6D MR독립영상관 설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등

## □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3.6조원 투자

## 도시재생 1.5조원

- 주차장·골목길 정비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100개 추가), 상업·주거 복합시설 조성, 상가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 등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도시재생	1.1조원	1.5조원	'18년 대비 30.2% 증가
· 도시재생사업 (균특회계)	4,638	6,463	· '19년 100곳 추가 지원(68→168)
· 도시재생사업 (주택기금)	6,751	8,339	· 뉴딜융자(748→1,792억원, 9→10개) · 소규모주택정비(융자)(3,500→4,372억원)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1.3조원

- 농어촌 읍·면 중심지 활성화(문화·복지시설 등 확충),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1,230→1,312개소)
- 어촌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어촌뉴딜 추진(70개소)
-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3→7개군)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20→30개마을) 등으로 에너지 취약지 지원 강화
-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44→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110개 도서)을 통해 지역의 먹는 물 문제 해소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0.9조원	1.3조원	'18년 대비 57.5% 증가
· 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 등)	6,062	6,248	· 1,230→1,312개소
· 어촌뉴딜	-	1,974	· 70개소 신규
·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287	531	· 3→7개군
·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985	2,105	· 44→66개소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38	1,499	· 19→110개 도서

## 스마트 영농 0.1조원

- 스마트 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등 스마트 영농 확산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스마트 영농	85	870	'18년 대비 923.1% 증가
· 스마트 팜	85	667	· 혁신밸리 4개소, 캠퍼스 2개소,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14→28개소
· 스마트 양식	-	150	· 클러스터 1개소,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지원 1개소
· 스마트 축산	-	53	· ICT 시범단지 2개소



##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보급 0.7조원

-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5배 늘리고(500→2,500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융자 사업 신설(504억원)
- 정부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1,425→2,100개)하고, 지원 수준도 1억원으로 두 배 인상(782→2,661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0.2조원	0.7조원	'18년 대비 337.5% 증가
· 산업단지환경 조성	566	3,365	· 펀드조성 2,500억원 임대공장 16개소, 복합복지센터 13개소
· 노후공장 재정비지원	215	1,104	· 융자 신설(504억원) 등
· 스마트 공장	782	2,661	· 1,425→2,100개(정부지원)

## □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에 3.4조원 투자

### 복지시설 기능보강 0.4조원

- 장애인 거주시설(108→270개소), 노숙인 시설(3→11개소), 한부모 시설(42→77개소),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등 복지시설 개선
-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41개소) 기능보강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복지시설 기능보강	0.2조원	0.4조원	'18년 대비 95.4% 증가
· 장애인복지시설	222	333	· 거주시설 108→270개소
· 노숙인시설	21	35	· 3→11개소
· 지역아동센터	-	96	· 1,200개소 환경개선
· 어린이집	58	105	· 674→983개소
· 지역거점병원	530	977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41개소

## 생활안전 인프라 2.3조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500억원)하고, 저소득 주택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4.9→10만호)
  -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용자 신설(600억원)
- 횡단보도 조명 설치,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량 등 도로·철도의 교통안전시설 확충(1.5→1.7조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생활안전인프라	1.9조원	2.3조원	'18년 대비 19.4% 증가
· 노후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	300	500	· 가스차단기·입구경사로 설치 등
· 서민층가스 시설 개선	97	199	· 4.9→10만호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5	247	· 노후전선 정비(57개소), 화재알림시설 2.5만곳 설치
· 화재안전 성능보강(용자)	-	600	· 공공·연립주택 등 약 1.5천동
· 화재안전 성능보강(보조)	-	10	· 의료·노유자·목욕장 시설 등 약 1천동
· 도로교통안전	13,950	15,210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029→2,329억원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30→566억원
· 철도교통안전	1,310	1,465	· 스크린도어 등 개량 614→624억원

## 미세먼지 대응 0.2조원

- 도시 바람길 숲(10개소)과 미세먼지 차단 숲(60ha)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차 급속 충전기(1,270→1,325기), 수소 충전소(10→30개소)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미세먼지 대응 (생활 SOC)	0.1조원	0.2조원	'18년 대비 62.8% 증가
• 도시바람길 숲	-	50	• 10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	-	300	• 60ha
•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	77	• 환기설비 교체 46개, 자동측정망 255개 설치
• 전기차 충전 인프라	935	965	• 급속충전기 1,270→1,325기
• 수소차 충전 인프라	150	375	• 10→30개소

### 신재생 에너지 0.6조원

-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주택, 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3,660→5,553억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 고
○ 신재생 에너지 보급	0.4조원	0.6조원	'18년 대비 52.3% 증가
•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900	2,883	• 609개 공공청사 태양광시설 설치 등 • 영농형 태양광 등 5.5→9.4만호
•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1,760	2,670	• 농가, 협동조합 등 지원

## [2] 저출산 대응

---

###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3.0→4.3만호) 및 자금융자 지원 확대(4.3→8만 가구)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주택유형(아파트)을 고려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도입 및 행복주택 면적 확대(최대 44→59m<sup>2</sup>)
-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1→1.5만호)

### □ 출산·돌봄 지원

-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본격 지급(0.7→1.9조원)
-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11개 질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8→11.7만명)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월 50만원(90일) 출산급여 지급(5만명)
-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사용시간(年 600→720시간)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직장어린이집 135개소 공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 시설 확충
  - 영세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직장보육 취약계층을 위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3→10개소)

## □ 일·생활 균형 지원

-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도 월 150→2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아빠의달 상한 인상\*\*으로 남녀 평등한 육아환경 조성
  - \* 유급휴가 3→1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 지급(상한 월 200만원)
  -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250만원으로 인상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인수인계기간(2개월) 월 60→12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월 20→30만원) 지원 확대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공공임대	30,426	50,141	· (매입·전세임대) 평균소득 70% → 100%(맞벌이 120%) 이하로 확대 · (행복주택) 최대 44→59m <sup>2</sup> 확대
· 아동수당	7,096	19,271	·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449	777	·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375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90일간 월 50만원 급여지급
· 온종일돌봄	9	348	·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확충 ·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	1,084	2,245	· 6.5→9만가구 지원
· 직장어린이집	1,451	1,627	· 직장어린이집 135개소 확충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10개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2	349	· ('19.하~) 일 1시간 단축 허용, 첫 1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	-	203	· ('19.하~) 유급휴가 3→10일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급(5일)
· 육아휴직급여	9,886	11,388	·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5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 월 200→250만원 인상

### [3] 미세먼지 대응

#### □ 미세먼지 대응에 1.7조원 투자

- '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17.9월, 종합대책) 달성 등을 위해 투자 대폭 확대(1.3→1.7조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1톤 화물차 LPG 전환 신규 지원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투자 지속
-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확대
  - \* 어린이·노약자(1.2만명, 시범사업), 군장병·경찰 등 현장인력(90만명)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미세먼지 대응	1.3조원	1.7조원	'18년 대비 33.2% 증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3,523	4,573	· 승용차 2.0→3.3만대 · 버스 150→300대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85	810	· 수소차 130→2,000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4	1,206	· 조기폐차 11.6→15.0만대
· 1톤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지원	-	19	· 950대 신규
· 미세먼지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	3	· 어린이 및 노약자 1.2만명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	397	· 도시 바람길 숲 10개소 · 미세먼지 차단 숲 60ha

## [4] 사회적가치 투자 확대

### □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해 100대 과제를 선정, 투자 확대
-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스마일센터 1개소 신설(13→14개소) 및 성폭력 상담소 인력 확충 등 강력범죄·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확대
  - 경찰수사현장 시민인권보호관 파견사업 신설(7억원), 장애인 차별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10.6만명),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노동분쟁 상담·조정서비스 제공,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1.2만개소) 등 근로조건 보호 및 증진

- 성폭력 피해자 지원(억원): ('18) 270 → ('19안) 313
- 취약분야 인권개선(억원): ('18) 13 → ('19안) 19
-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억원): ('18) 32 → ('19안) 68
- 근로조건개선지원(억원): ('18) 103 → ('19안) 120

### □ 사회적 가치 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 가치의 지자체 확산을 위해 군특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 내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 신설
  - 지역공동체의 상시적 활동 공간 마련 지원(신규, 시도별 1개소)
-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여가· 건강 활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신설)	20개소	160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50개소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	16개소	243개소
	e스포츠 상설경기장(신설)	-	3개소
지역활력	어촌뉴딜	-	70개소
	도시재생	11,389억원 (68개소)	14,775억원 (168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9개 도서	110개 도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500억원	2,500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	2개소
생활안전 및 환경	장애인거주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108개소	270개소
	횡단보도조명시설 설치(국도)	718개소	1,088개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9만호	10만호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10개소
	수소충전소	10개	30개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저출산)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주거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3.0만호	4.3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1.5만호
	청년 공공임대	2.2만호	2.7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	0.1만호
일·생활 균형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일 2~5시간, 통상임금 80%, 최대 1년	일 1~5시간, 첫 1시간 100%, 최대 2년
	아빠의달 상한 인상	월 200만원	월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5일 (유급3일+무급2일) (정부지원 無)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 정부 지원)
출산·돌봄 부담 완화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지원 질환	5개	11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대상 확대	8만명 (중위소득 80% 이하)	11.7만명 (중위소득 100% 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5만명, 월 50만원(90일)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확충	17개소	20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연 최대 600시간	연 최대 72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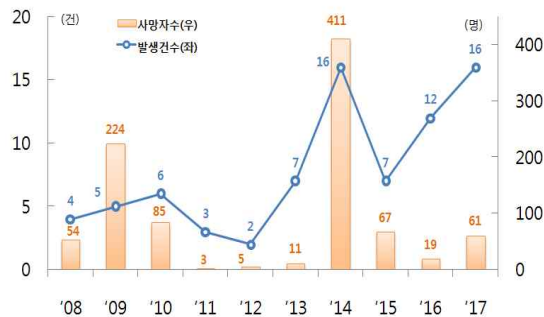
## ◇ 현황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빈도, 인명·재산피해가 줄지 않는 상황

○ 통일에 대해 현상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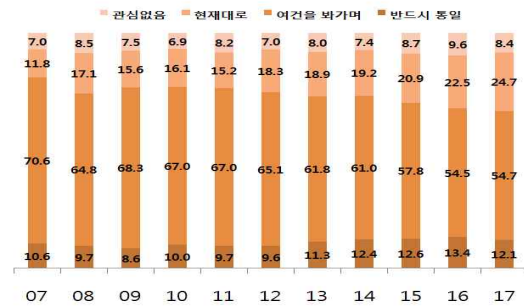
\*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데 46.1%가 동의(통일연구원, 2017)

&lt; 사회재난 발생 추이 &gt;



\* 행정안전부

&lt;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gt;



\*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07~'17)

## ◇ 재정지원 방향

## 자주국방 역량 강화

• '18년 대비 국방비 8.2% 확대

- 방위력개선투자 증점 투자

- 전략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미래전 대비 투자 확대

## 안전투자 확대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확충

• 먹거리 안전 강화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확대

• 연안해역 구조역량 강화

## 남북협력및외교역량강화

• 남북협력기금 확대로 판문점 선언 등 뒷받침

-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 남북 당국간 소통 활성화

-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교류 확대

•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 및 ODA 효과성 제고

-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교류협력 강화 지원

- ODA 규모 확대 및 부처간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성 제고

## [1] 자주국방 역량 강화

### □ 국방비를 '18년 대비 8.2% 확대

-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점 투자

(조원)

구분	'08	'09	'11	'13	'15	'17	'18	'19안
국방비(1+2)	26.6	28.5	31.4	34.3	37.5	40.3	43.2	46.7
1. 전력운영	19.0	19.9	21.7	24.2	26.4	28.1	29.6	31.3
2. 방위력	7.7	8.6	9.7	10.1	11.0	12.2	13.5	15.4

\* 국방비, 방위력개선비: '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4.4→5.1조원)로 전작권 전환 뒷받침
  -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R&D 확대(2.9→3.1조원)
- 軍 복무여건 개선 및 미래戰 대비 투자확대
  - GOP 등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의료체계 정비 등 軍 복무여건 개선
  - 드론봇전투단 등 미래戰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 투자 확대

구 분	'18년	'19안	비 고
<b>【방위력개선분야】</b>			
• 한국형 3축 체계	4.4조원	5.1조원	• '18년 대비 16.4% 확대 (Kill-Chain, KAMD, KMPR)
• 국방 R&D 투자	2.9조원	3.1조원	• '18년 대비 8.4% 확대 (한국형 전투기 및 군위성 개발 등)
<b>【전력운영분야】</b>			
• 軍 복무여건 개선	1.9조원	2.3조원	• 격오지 장병복지 426→764억원 • 초급간부숙소개선 2→17천실
• 軍 의료체계 개선	0.1조원	0.2조원	• 의료인력확충 886명, 군 외상센터 개소
• 미래戰 대비	-	0.1조원	• 워리워플랫폼 4천명, +153억(신규) •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신규)
• 예비군 정예화	0.1조원	0.2조원	• 동원훈련비 16→32천원(100%) 등

## [2] 안전투자 확대

### □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재해위험지역 정비(440→487개소) 등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
  - 상습가뭄재해지구 방재시설 설치(신규 5개소), 자력정비가 어려운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신규 2개소) 지원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 생활권 중심, 마을 단위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신규 5개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확대 및 조사결과 활용·대국민 공개를 위한 건축물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재해위험지역 정비	3,760	3,930	· 440→487개소
· 화재안전특별조사	116(예비비)	331	· 17.2→38.2만동
· 건축물 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34(예비비)	42	· DB(자료저장)→DW구축(구조화)

###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앙119 특수구조대 응급의료헬기 보강(4→6대)
-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254개) 및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확충(+192개)
- 거동불편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지원 신설(37개 구역)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839	997	· '18년 대비 18.8% 확대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532	597	· 13→15개소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9	32	· 3→9개소
- 응급의료헬기	288	368	· 4→6대
· 치매안심센터 운영	1,035	2,087	· 완전개소 254개소
·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670	1,065	· 192개소 추가 확충
· 가정방문원격진료 서비스	-	21	· (신규) 37개 권역 대상 시범사업

## □ 먹거리 안전 강화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노인복지관 등에 식단관리 및 위생관리 지도(10개소)를 통해 공공급식 관리 강화
-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 현지실사 강화 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실시('19.1.1.)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 원칙적 사용금지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413	434	• 신규설치 4개소(220→224), 기존센터 29개소 운영 규모 확대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	4	• 10개소 시범운영
•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추진	138	219	• 직권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 기술지원 및 홍보

## □ 연안해역 구조역량 강화

-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 중 25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운영하여 구조 사각지역 최소화
-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레이더 추가 설치
- 잠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 구조 인력 및 장비확충 지원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구조거점파출소	-	25	• 25개소 지정·운영
• VTS 구축운영	154	211	• 영흥수도(2개소), 포항구항(1개소) 레이더 신규 설치(총 13억원) 등
• 구조장비 확충	2	11	• 구조인력 확충(262명)에 따른 잠수장비 보강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 ① 자살예방 강화: 204→256억원(+52억원)

- 자살 징후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100만명 양성
-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검진 및 모임활동 지원

### ② 산업재해 감소: 3,549→3,690억원(+141억원)

-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보조지원 확대(8,000→8,744개소)
- 타워크레인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1개소 신규 구축

### ③ 교통안전 강화: 1조 6,635억원→1조 8,094억원(+1,409억원)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정비 확대
- 보행자 통행로 확보,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국도변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등 보행자 안전 확보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자살 예방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15	21	· 생명사랑지킴이 100만명 양성
	· 독거노인지원확대	27	39	· 우울증 검진 및 모임활동 지원 4.8→6.9천명
산재 예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685	747	·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요인 시설개선 8,000→8,744개소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	-	59	· 1개소 건립(신규)
교통 안전 강화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30	566	· 어린이보호구역 196→350개소 · 노인보호구역 40개소(신규) · 보행환경 조성 8→41개소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029	2,329	·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718→1,088개소 · 마을주민보호구간 60개소(신규)

### [3] 남북협력 및 외교역량 등 강화

#### □ 남북협력기금 1.1조원 수준 확대로 판문점 선언 등 뒷받침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남북회담 추진 등을 통한 남북 당국간 소통 활성화 지원
-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및 이산가족교류 확대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3,446	5,044	•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등 경제협력
• 남북회담 추진	8	16	• 회담 개최횟수 확대(22→29회)
• 사회문화교류 확대	129	205	•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33→36억원) 등
• 이산가족교류 확대	120	336	• 대면상봉(3→6회), 고향방문(1→3회)

#### □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및 ODA 효과성 제고

- 아세안 등 신남방 국가 및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지원
- ODA 규모 확대 및 부처간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성 제고

(억원)

구 분		'18년	'19안	비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	• 베트남 TASK센터	-	17	• 자동차산업 분야 등 애로기술 지도
	• 한-아세안협력기금	79	154	• 산업, 문화 등 협력(7→14백만불)
	• 우즈베크 전자무역 플랫폼	-	30	• 전자상거래 구축
	•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	7	14	•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 ODA규모		29,583	31,294	• 5.8% 증가(편성액 기준) * 융합프로그램 지원: (‘18) 12부처, 37개→(‘19안) 15부처, 50개

□ '19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
자주국방 역량강화	국방비 증가율	7.0%	8.2%
	방위력 개선	13.5조원	15.4조원
	초급간부숙소 전면개보수	2,000실	17,000실
	국군외상센터	72억원	355억원(완공)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3일)	1.6만원	3.2만원
안심사회 구현	화재안전	436억원	1,521억원
	자살예방, 산업재해 감소, 교통안전	2조 438억원	2조 2,040억원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6,570억원	7,068억원
	식의약안전	4,745억원	5,033억원
남북 교류협력	남북회담 예산	8억원	16억원
	남북 이산가족 교류	대면상봉 3회 고향방문 1회	대면상봉 6회 고향방문 3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예산	129억원	205억원
외교역량 강화	영사콜센터 운영	상담사 50명 (6개국어 상담)	상담사 56명 (7개국어 상담)
	한-아세안 협력기금	700만불	1,400만불
	ODA 융합예산	12개 부처 37개 프로그램	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 · 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 저소득층과 한부모,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 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22→'19) 포함시 제외
  - \* 주거지원 지원대상: ('18) 중위소득 43% → ('19) 중위소득 44%
- 한부모·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2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 집중 지원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20(청소년 한부모: 18→35만원)
  - \* 한부모 가족시설(서울 25개소, 지방 100개소)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 멘토링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 주간활동서비스(1,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칭교육 등(3,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보호종료 2년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지원(240호)

### 3 성장사다리 복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추진

- (저소득 청소년) 우수인재·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 저소득층 우수인재(1,500명), 체육 우수인재(1,500명), 장학금(월 평균 40만원)
- (노인) 소득하위 20% 대상(150만명)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21년→'19.4월),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51→61만개)
-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대상(중증장애인의 30.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21년→'19.4월)

-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4개) · 커뮤니티 케어(12개 시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 중심 돌봄 추진

#### 4] 주거지원, 보육지원 및 일·가정 균형 등 저출산 대응 지원

- (주거) 신혼부부 공공임대 1.3만호, 자금융자 3.7만가구 확대
-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중위소득 120→150%, 年 600→720시간),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일·가정 균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휴가 3→10일, 중소기업5일 지원),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3개월 상한 150→200만원)

#### 5] 국민건강·안전 투자 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의료인프라) 권역외상센터(13→15개소)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충(1→5개소)
- (안전) 수입식품 현지실사 강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시
- (보건산업) 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바이오 헬스 등 유망업종 실증·창업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10,152	127,046	▪ 의료급여 +6,390억원, 주거급여 +5,437억원
▪ 취약계층지원	26,204	34,12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86억원
▪ 공적연금	478,007	509,831	▪ 국민연금급여지급 +21,478억원
▪ 보훈	55,256	55,478	▪ 보상금 +706억원, 6.25 자녀수당 +250억원
▪ 주택	233,870	262,329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6,605억원
▪ 사회복지일반	11,268	12,975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268억원
▪ 아동·보육	64,625	78,578	▪ 아동수당지급 +12,175억원
▪ 노인	110,293	139,133	▪ 기초연금지급 +23,718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7,371	10,182	▪ 아이돌봄지원 +1,161억원, 한부모자녀 +1,151억원
▪ 고용	166,983	198,670	▪ 구직급여 +12,521억원
▪ 노동	66,573	67,090	▪ 산재보험급여 +353억원
▪ 고용노동일반	4,548	5,485	▪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805억원
▪ 보건의료	24,129	25,689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477억원
▪ 건강보험(정부지원)	82,167	90,187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7,000억원 등
▪ 식약안전	4,719	5,008	▪ 인건비 +51억원
합 계	1,446,166	1,621,808	121% 증가

\* 정부예산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19년 69.7조원,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19년 8.0조원이며, 이를 보건복지 분야에 합산하면, '19년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8.6→12.2% 예상

## <참고> 일자리 분야

- ◇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 직업훈련 내실화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

### □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 창출 지원

####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추경 9만명 → '19년 18.8만명(기존 9만+신규 9.8만)

\* 청년내일채움공제 : '18추경 11만명 → '19년 23만명(기존 11만+신규 12만명)

#### ○ 졸업후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10만명, 0.2조원) 및 청년전담 전달체계 확대(20개소)

\* (대상) 졸업후 2년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

(지원수준)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 해외, 지역, 사회적 경제 등 일자리 창출의 저변 확대

\* (해외진출) 해외봉사단 파견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 확대(5,607→6,357명)  
(지역주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만명 지원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대폭 확대(2,159→3,685억원)

### □ 여성·노인·신중년·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지원 강화

#### ○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아빠의달 상한 인상 등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 ○ (노인)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신설)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2,500명) 및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확대('18추경 3,000명→'19년 5,000명)

#### ○ (장애인) 근로지원인(1,2→3천명), 보조공학기기(+2천점) 등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맞춤센터 +1개, 발달센터 +6개)

□ **직업훈련 질적 내실화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 강화**

- (재직자 훈련)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방식 개편**(Positive→Negative)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신규지원**(13.6만명)
- (4차 산업혁명)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확대**(700명 →1,300명)
- (선취업 후진학) 先취업 확산을 위해 **고교 취업장려금 지원 강화**(신규 780억원) 및 학업 지속을 위해 **주경야독장학금**(신규 576억원) 지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등 **보장성 강화**(6.2→7.4조원)

\* (지급액) 평균임금 50→60%, (기간) 90~240일→120~270일  
(수급요건) 65세 이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요건 완화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하여 구직기간 중 생활안정지원(213억원)

\* 중위소득 50%이하 대상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 (사회보험 지원)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 사업 : ('18) 8,932억원, 200만명 → ('19안) 13,562억원, 237만명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8) 1~2등급 50%, 12억원 → ('19안) 1~4등급 30~50%, 2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직접일자리	31,961	37,800	노인일자리 확대 51→61만명(+10만명)
▪ 직업훈련	20,645	19,711	근로자능력개발지원(47→53만명)
▪ 고용서비스	9,354	10,705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규10만명)
▪ 고용장려금	37,879	59,204	육아휴직급여(11→12만명)
▪ 창업지원	24,475	25,74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만명)
▪ 실업소득 유지·지원	67,998	81,412	구직급여(6.2→ 7.4조)
합 계	192,312	234,573	22.0% 증가

- ◇ 대학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육성
- ◇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숙사·장학금 등 지원 강화
- ◇ 선취업·후진학 지원 및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 □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 육성 촉진

- 복잡·다양한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 대학의 기본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적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뒷받침 (4,447→5,688억원)
- 지방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800→1,504억원)
-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보유 기술의 실용화 지원 확대\*\*

\* LINC+ : ('18) 2,025 → ('19안) 2,531억원 / \*\* BRIDGE+ : ('18) 125 → ('19안) 165억원

- 대학 유휴 부지·시설을 활용한 기업·연구소 유치를 통해 대학內 산학협력단지 조성 (신규, 2개 40억원)

#### □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 '22년까지('18~'22) 초등돌봄교실 3,500개를 확충, 지원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19년 210억원, 700개)
- 행복기숙사를 확대\*하여 대학생 주거비부담 완화
  - \* ('18) 1,116 → ('19안) 1,180억원 (신규착공 9개, +6,700명)
- 직업체험 기회와 함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2,530억원, 10.3만명 → 2,774억원, 10.6만)
-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란사다리' 사업 확대 (33억원, 800명 → 48억원, 1,200명)

## □ 선취업·후진학 지원 및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 고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여건 조성에 중점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1인당 300만원) 및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에 대한 후진학 장학금 지원 (주경야독장학금, 학기당 평균 320만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지원 확대
    - \* ('18) 113억원(대학12교) → ('19안) 241억원(대학20교, 전문대학(신규) 6교)
- 온라인 교육을 내실화 하고,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직장인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로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78→97억원, 신규개발 120개)
  - 성인학습자 대상 단기 교육프로그램(매치업 운영) 개발·운영 (16 → 17억원, 신규과정 10개 추가개발)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로 저소득층 평생학습 기회 보장 (24억원, 5천명 → 31억원, 7천명)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537,153	598,011	· 교부금(49.5→55.7조원) · 누리과정 (3.9→3.7조원)
▪ 고등교육	96,742	101,287	· 산학협력고도화(2,212→2,925억원) · 대학혁신지원사업(4,447→5,688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39,958→39,986억원)
▪ 평생·직업교육	6,738	8,756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127→241억원)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24→31억원) · 매치업 운영(16→17억원)
▪ 교육 일반	1,265	1,302	· 인건비( 660→679), 기본경비(275→281)
합 계	641,898	709,356	10.5% 증가



- ◇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품격있는 여가 환경 조성
- ◇ 소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체육 분야 향유기회를 제고
-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

□ **쉽과 활력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대폭 확충

\* 기본형 (20→30개), 장애인형(신규 30개), 근린 생활형(신규 100개)

- 책·문화가 함께하는 북카페형 공공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작은 도서관 대폭 확대

\* 도서관 리모델링 : 50개소 / 작은도서관 : ('18) 16 → ('19) 243개소

□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고하고 예술인 복지 강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7→8만원) 및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월 8만원, 8개월 지원) 확대(43,750→68,700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설(105억원), 예술인 창작활동 전념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을 확대(4,500→5,500명)

□ **문화콘텐츠 산업 新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문화계정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늘리고(540→750억원) 완성보증 기관 다변화(기보→기·신보) 및 보증규모 확대(100→200억원)
- 콘텐츠 분야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도전)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공정성장 환경 조성 지원\*\*

\*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 ('18) 24억 → ('19) 80억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 실태조사,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등(신규 4.5억)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및 체육 우수인재 지원

-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43,750→48,000명) 하고, **장애학생** 등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발급 시범사업 추진**(5,100명)
- 저소득층 초·중·고 체육 우수인재를 발굴(年 1,500명), **장학금을 지급하여**(평균 월 40만원)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지원

\* ('19년 예산) 75억원 : 장학금 72억원(1,500명×40만원×12월) + 멘토링 등 3억원

□ 고부가가치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

- 한국형 '체크 바캉스'인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원 확대 등 국내 여행 활성화**(25 → 105억원)

\* 연간 1일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3위(2,113시간, '15 국제무역연구원)

- MICE산업, 웰니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럭셔리 관광시장 진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MICE산업·웰니스관광·고급관광 : 324 → 358억원

\*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1위(2017 마이스 국제협회연합)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문화예술부문	27,201	30,087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540→75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05)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467→514)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846→969)
체육부문	11,850	14,394	생활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20→30개)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0→100개) 생활권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지원(0→30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43,750→48,000명) 체육영재 장학금 지원(0→1,500명)
관광부문	14,021	14,302	국내관광 역량 강화(307→327) 웰니스·MICE·고급관광(324→358) 관광두레 조성(60→80)
문화재부문	8,018	8,693	문화재보수정비(2,951→3,451)
문화일반	3,517	3,632	경상경비 등
합 계	64,606	71,108	10.1% 증가

- ◇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기초연구 등 투자로 혁신성장 가속화
-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R&D 투자 확대
-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연계 R&D 투자 강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3대 전략투자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혁신성장 가속화 및 미래 연구역량 확보

○ 데이터·AI 경제,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 적극 추진

- 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R&D 투자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신규, 300억원, 과기부·산업부 공동 추진),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신규, 60억원), AI 알고리즘 기술개발(297→403억원) 등

- 수소 생산·저장·배송·활용 등 밸류체인별 R&D 확대

\*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02억원) 등 밸류체인별 R&D(372→730억원)

○ 4차 산업혁명의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집중 지원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177→188억원),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신규, 62억원) 등으로 국내 연관산업 육성 지원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960→1,328억원),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신규, 85억원) 등으로 신시장 창출

○ 자율·창의형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1.4→1.7조원)

\* 기초연구 수혜대상 인원 : ('18) 1.7만명 → ('19) 2.1만명, +0.4만명

\* 「신진연구·생애첫연구 → 중견연구 → 리더연구」 연구단계별 체계적 지원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확대

- 지역이 원하는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 지원

\* 의약·바이오(대구·충북·경북, 404→542억원), 탄소나노산업(강원·전북, 7→37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지원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18) 3.5 → ('19안) 3.7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감형 R&D 투자 강화

- 미세먼지 및 재난안전 분야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 R&D 추진

\* 미세먼지 공모사업(신규, 51억원), 생활안전 공모사업(신규, 42억원)

-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식품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 방사선안전소재(신규, 11억원), 생활폐기물(신규, 76억원), 식품 안전관리(298→310억원)

- 국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의료서비스 개선 R&D 강화

\* 돌봄로봇 기술개발(신규, 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신규, 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신규, 1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 고
▪ ICT·SW	23,764	24,386	·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45→117) · 지능형반도체 선도기술개발(신규 150)
▪ 생명·의료·농림	34,321	35,249	· 연구중심병원육성(300→341) · Golden Seed 프로젝트(205→262)
▪ 에너지·환경	22,554	23,408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079→2,179)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149→159)
▪ 소재·기계·건설	31,557	32,606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587→641)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291→400)
▪ 우주항공·해양	19,381	20,790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175→193)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신규 110)
▪ 기타	65,104	67,557	· 인문사회 기초연구(1,470→1,61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2,347→2,518)
합 계	194,681	203,997	3.7% 증가

-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성과 가시화 및 에너지 복지 개선
- ◇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망 확충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주력산업) 산업인프라 고도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향상 및 구조조정 업종 지원 확대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을 확대(6→13개)하고 지방이전, 신·증설, 국내유턴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60→100억원)

\* 산업단지환경개선 : ('18) 566 → ('19안) 3,365억원

-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협업기술 개발(신규 62억원) 및 수출 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신규 128억원) 등 중소·중견 경쟁력 제고
- 위기업종 부품기업에 대한 R&D 지원(신규,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 및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 확대(신규 41척 이상, 757억원)

□ (창업지원)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 (창업초기)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500팀 대상 최대 1억원 오픈 바우처 지원(1,011억원)

- (성장지원) 창업성공패키지(525→1,000팀), TIPS\*(195→250팀) 지원확대 등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강화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이 스타트업에 1억원 투자시 정부가 사업화·해외진출·R&D·엔젤펀드 매칭 등 총 9억원 지원

- (도약·재창업)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294→350팀) 확대

\* ('18) 500(1,000팀, 5천만원) → ('19안) 840억원(1,200팀, 7천만원)

- (자금확대) M&A·회수 펀드(1,500억원), 소셜벤처펀드(500억원), 등 신규 출자 확대

□ (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폭 강화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 불균형 해소

- '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0.5%('30년 20%) 달성하기  
위해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확대(5,739→7,732억원)

\*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사업,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신규 지원

\*\* 태양광·풍력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연료비 절감,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된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344→607억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 구축 지원(50억원),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1→2조원) 등 소비 촉진

\* 온누리 상품권 : ('18) 730 → ('19안) 1,772억원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폐업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7,500→2만명), 재창업(2,800→6,000명) 지원 강화

\* (지원비율) 1등급 30%→1·2등급 50%, 3·4등급 30% / (지원기간) 2→3년

- 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등 자금지원 강화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에너지및자원개발	32,683	34,631	·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 (3,660→5,553)
▪ 창업및벤처	27,798	32,914	·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1,011억원) · 창업성공패키지 (540 → 972억원)
▪ 중소기업 육성	35,848	38,092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782→2,661억원)
▪ 소상공인 육성	20,379	25,747	· 시장경영혁신지원 (1,671 → 2,744억원)
▪ 무역및투자유치	6,197	6,871	· 통상분쟁대응 (35→92억원)
▪ 산업혁신지원	31,711	37,265	· 산업단지환경조성 (566→2,057억원)
▪ 지식재산일반	2,750	2,816	· 모태조합 출자 (200→100억원)
▪ 산업금융지원	-	2,000	·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2,000억원)
합 계	163,088	186,488	14.3% 증가

- ◇ 완공 위주로 투자하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
- ◇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
- ◇ 드론·자율차·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SOC 투자 확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

\* G20 국가 중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 1위('16), 국도 2위('16), 철도 6위('15)

- 전년 이월·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화 추진

-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 강화

- 대도시권 순환도로·혼잡도로(신규 3개), 수도권 광역철도 등 지속 투자로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대도시권 순환도로(5개 사업) : ('18) 3,540 → ('19안) 3,814억원(+274)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 ('18) 200 → ('19안) 800억원(+600)

- 지역 거점 연결 위한 주요 고속도로, 철도망 구축 집중 지원

\* 안성-구리 : ('19안) 2,659억원(+229), 새만금-전주 : ('19안) 1,318억원(+481)

\* 보성-임성리 철도 : ('19안) 2,900억원(+223), 서해선 전철 : ('19안) 5,985억원(+152)

-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 인프라 고도화

- (도로·철도 안전) SOC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

\* 도로유지보수 : ('18) 5,615 → ('19안) 5,911억원(+296)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8) 5,549 → ('19안) 6,168억원(+619)



- (차량 안전) 자동차제작결함조사(예방) 강화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교환·환불) 신규 도입(9억원)으로 차량 안전 제고

\* 제작결함조사 및 교환·환불제도 운영 : ('18) 49 → ('19안) 74억원(+25)

- (건축 안전)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신규 지원 및 건축문화진흥 투자 확대(총괄건축가, 고급설계인력양성 등 신규 도입)

\*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 ('19안 신규) 610억원(1,572동 지원)

- (이동권 강화) 장애인 및 농어촌·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강화 지원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 지원 : ('19안 신규) 13억원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 ('18년) 80 → ('19안) 553억원 (+473)

## □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19~'22년) 착수 및 스마트도시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

\*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 : ('18년) 99 → ('19안) 564억원 (+465)

- (드론) 공공분야 드론구매 확대(78→956대), 전용시험비행장 완공(영월, 보은, 고성), 드론 인증센터 및 교육센터 신규 구축

\* 드론 전용시험비행장·실기시험장 구축 : ('18) 100 → ('19안) 150억원(+50)

\* 드론 인증센터 : ('19안 신규) 35억원, 드론 교육센터 : ('19안 신규) 9억원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고도화(K-City), C-ITS 시범도시 확대(2→4개)

\*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고도화 : ('18) 12 → ('19안) 44억원(+32)

\* C-ITS 시범도시 확대 : ('18) 100 → ('19안) 190억원(+90)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도로	59,382	54,281	· 국도 건설(2.0 → 1.6조)
○ 철도, 도시철도	51,969	49,610	· 일반철도 건설(2.3 → 2.1조)
○ 해운·항만	17,644	16,709	· 항만개발 및 관리(1.3 → 1.3조)
○ 수자원	16,779	17,231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5 → 1.5조)
○ 지역 및 도시	16,670	19,343	· 도시정책(0.5 → 0.7조)
○ 물류, 항공, 산단	27,471	28,313	· 산업단지개발지원(0.3조 → 0.3조)
합 계	189,916	185,487	△2.3% 감소

- ◇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
-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 □ 농림·수산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영농 추진

- (스마트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배기술을 개발·실험, 보육센터·임대형팜을 통해 인력 육성, 첨단 원예시설 등을 집적화한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 ('18) 70 → ('19) 568억원(+498억원)

- (스마트양식·축산)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장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 빅데이터를 제어·활용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구축

\* 테스트베드 및 데이터센터, 생산단지, 가공·유통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2개소) 조성

#### □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로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 (농대 역할 강화) 농식품분야 창업 의무장학금 신설 및 융합형 교육과정 도입·실습시설 지원 통해 혁신인력 양성

\* 의무장학금 지원(800명, 등록금 전액 + 장려금 200만원)

\*\* 융합형교육과정(농대+타단과대) 신설, 스마트팜 등 농대실습시설 지원

- (패키지 정착지원)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경영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일괄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80~100만원, (맞춤형농지지원) 1인당 1ha (운영자금) 1인당 1.5억원 융자



□ 재해 예방 강화, 타작물 재배 기반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도모

- (재해 예방)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57→60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국고보조를 인상(50→70%)

\* 농업재해보험 : ('18) 3,031 → ('19안) 3,550억원(+519)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 ('18) 613 → ('19안) 733억원(+120)

- (타작물 재배) 밭작물 기계화 촉진·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 등 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자급률 제고

\* 농기계임대 : ('18) 309 → ('19안) 435억원, 밭작물기계화율 58.3 → 60.3%

\*\* 밭작물공동경영체(신규, 개소) : ('17) 20 → ('18) 20 → ('19안) 25

□ 농어업인 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복지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을 인상(91→97만원) 하고, 농지연금 가입지원을 확대(농지감정평가율 80→90%)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18) 1,777 → ('19안) 2,021억원(+244)

\*\* 농지연금 지원 : ('18) 923 → ('19안) 1,299억원(+376)

- (지역 개발) 어촌지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4가지 모델\*로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70개소, 1,974억원)

\* 4가지 모델 :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농업·농촌	147,652	149,030	▪ 스마트팜 혁신성장 거점조성(+582), 맞춤형농지지원(+766)
▪ 수산·어촌	21,573	22,284	▪ 어촌뉴딜300(+1,974), 수산물해외시장개척(+15)
▪ 임업·산촌	20,943	21,186	▪ 도시숲 조성(+381), 산림서비스도우미(+61)
▪ 식품업	7,088	6,926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115)
합 계	197,256	199,426	1.1% 증가

- ◇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기후 부문 집중 투자
- ◇ 화학물질, 살생물제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 ◇ 도서지역 식수원, 노후상수도 등 먹는 물 투자 대폭 확대

□ (대기·기후)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사업 중점 지원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 \* 전기차(환경부) : ('18) 승용 2만, 버스 150대 → ('19안) 승용 3.3만, 버스 300대
- \* 수소차(환경부) : ('18) 승용 130대 → ('19안) 승용 2,000대, 버스 30대
- \* 충전인프라(환경부) : 전기급속(1,070→1,100기), 수소충전소(10→20개소)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1.6→15만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확대(1.8→2.3천대) 및 1톤 노후 화물차 LPG 전환 신규 지원(950대)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신규, 100개소),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및 미세먼지 측정망(255개) 신규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35억원)하고,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적응 모델 개발(신규 18억원)

□ (환경보건)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이행 및 기반 구축 중점 지원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에 맞추어 살생물제 안전성 승인\* 및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19안 123억원)

- \*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 검증 →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 허용

○ 만성·급성 흡입독성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시설 준공 지원(188억원)

○ 월경성 오염물질 등 국제적 환경보건 이슈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설립 지원(신규 9억원)

- (자연) 국립공원 야영장(40→42개소) 등 생태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 확충(14→16개소)으로 야생동물 보호 강화
-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선별장 시설 지원 확대(12→22개),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76억원)
- (상하수도) 그간 투자로 보급률이 확충(93%)된 하수도 투자는 효율화하고, 급수취약 도서 등 상수도 투자 확대
  - (상수도)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 지원을 대폭 확충(19→110개 도서) 하고, 먹는 물 안전을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확대(44→66개 지역)
  - (하수도) 신규 건설 → 노후관로 개량 등 안전투자 중심 전환
    - \* 하수관로 개량·교체 비중(%) : ('16) 25.8 ('17) 31.9 ('18) 38.4 ('19안) 40.3
- (해양환경) 해양오염사고 피해예방 등을 위한 선박건조 지원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22→194억원)를 지속 지원하고, 선령 50년 이상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용자 신규지원(16척)

(단위 : 억원)

구 분	'18예산	'19예산안	비고
▪ 기후대기·환경안전	9,646	12,247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3,523억→4,573억원)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186억→810억원) · 화학제품 안전관리 (신규, 125억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89억→304억원)
▪ 폐기물·환경경제	6,551	6,634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270억→1,517억원)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67억→124억원)
▪ 자연·환경일반	10,012	11,092	·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1,600억→1,788억원)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952억→1,148억원)
▪ 상하수도·수질	40,146	38,651	· 노후 상수도 정비(994억→2,122억원)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238억→1,516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3,412억→2,486억원)
▪ 해양환경	2,629	2,852	·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22억→194억) · 노후 유조선 용자(신규, 120억)
◇ 환경분야	68,984	71,476	3.6% 증가

- ◇ '08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
-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작권 전환 지원
-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비복지·생활여건 대폭 개선

#### □ '자주국방 및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방비 투자 확대

##### ○ (국방비 규모) 국방비 재정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

-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08년 이후 최고 수준

\* 국방비 증가율(%): ('08) 8.8, ('11) 6.2, ('14) 4.0, ('18) 7.0, ('19안) 8.2

##### ○ (무기체계 투자확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집중 투자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방사청 개청('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08) 15.0, ('13) 2.8, ('18) 10.8, ('19안) 13.7

\*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 ('08) 28.8, ('13) 29.5, ('18) 31.3, ('19안) 32.9

####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작권 전환 지원

##### ○ (전작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美→韓)과 관련, 한국형 3축체계와 핵심전력 보강에 집중 투자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 ('18) 4.4 → ('19안) 5.1조원 (16.4%)

#### □ 국방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의 차세대 전략산업화 추진

##### ○ (국방 R&D) 방산기술우위 확보, 무기 국산화 위한 적극 지원

\* 국방 R&D 투자 : ('18) 2.9 → ('19안) 3.1조원 (8.4%)

##### ○ (방위산업) 수출구조로의 전환 위해 해외 맞춤형 시장개척 지원

\* 무기체계 개조개발 : ('18) 22.4 → ('19안) 200억원 (792.9%)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병복지·근무여건 대폭 개선

- (장병복지 증진) 격오지 증식비 인상, 제설·제초 등 사역해소
  - 격오지 증식비 단가 인상('18년 700원 → '19년 1,000원) 및 제설·제초 등 사역업무 민간위탁 확대('18년 261억원 → '19년 385억원)
- (근무여건 개선) 장병·초급간부 생활밀접물자 확충 및 시설개선
  - 세탁기, 제빙기 등 보급 확대('18년 20명당 1대 → '19년 10명당 1대, +8,573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18년 1,755억원 → '19년 1,916억원)
  - 노후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18년 2,000실 → '19년 17,000실) 및 독신숙소 냉장고 전면 보급('18년 52.8% → '19년 100%)
- (자기개발)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확대(1→20억원, 연간 1인당 5만원), 특성화고 운영·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 기능인력 육성지원
  - \* 국가·민간 자격취득 및 능력검정(어학·한국사 등) 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 미래戰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투자 적극 확대

- (미래戰 대비) 사이버공방훈련장을 구축하여 사이버전문가를 양성(신규 89억원)하고, 드론봇전투체계(신규 140억원) 및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구축
  - \* 육군(특전·보병대대)·해병대 개인전투체계 구축: ('19년) 4,000명, +153억원
- (예비군 정예화) 과학화 훈련장 설치·운영(31→124억원) 및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1.6→3.2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19년	비 고
• 병력운영	184,008	188,014	· 군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증가 (16,413 → 18,093) · 특수피복 (1,408 → 1,537)
• 전력유지	112,370	125,223	· 군사시설 건설·운영 (27,948 → 34,536) · 군수지원 및 협력 (49,356 → 52,937)
• 방위력 개선	135,203	153,733	· KF-16 성능개량 (1,546 → 7,602)
합 계	431,581	466,971	8.2% 증가

◇ 신남방 · 신북방 정책 등 추진 지원 및 양자원조의 효과성 제고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남북교류 활성화

□ 신남방 · 신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지원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700→1,400만불),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14억원) 등 신남방 · 신북방국가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확대
-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외교 역량 지속 강화(144→158억원)
- 해외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영사콜 상담사 증원  
(50→56명) 및 상담시스템DB 이중화(신규 2억원) 등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국가별 협력전략(CPS)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 내실있는 양자원조 도모

□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 남북회담 개최(8→16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적극 뒷받침
- 학술 · 문화예술 ·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129→205억원)를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조기 회복
- 대면상봉(3→6회) · 고향방문(1→3회) 확대 등 이산가족교류 촉진

(단위: 억원)

구 분	'18	'19안	비 고
· 외교 부문	34,980	37,246	· ODA(23,651→25,019)
· 통일 부문	12,258	13,547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9,593→10,977)
합 계	47,238	50,793	7.5% 증가

◇ 기초치안과 생활법치를 굳건히 하여 안심사회 구현

◇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치안망을 튼튼하게 구축

-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경찰서·파출소 신설 10개)하고,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270→330억원)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6개소) 및 지원인력 증원(+175명),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조력 확대(685→708억원)
-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확대,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 교도소 시설(신축계속 7개, 리모델링 8개), 재소자 진료비(119→142억원), 외국인사회통합 지원(110→123억원)

□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역량 강화

-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잠수복(2→11억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지원

\* 구조거점 파출소 신설(25개소)로 초기 대응시간 단축(45→30분) 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고
▪ 법원및헌재	19,608	20,721	국선변호료 지원(600억원),
▪ 법무및검찰	37,635	39,642	교정시설(2,990억원), 인권(370억원), 범피기금(1,011억원)
▪ 경찰	108,349	113,285	과학수사(330억원), 성폭력예방지원(117억원)
▪ 해경	12,671	13,800	구조거점파출소 신규운영(25억원)
▪ 재난관리	12,414	12,778	재해위험지역정비(3,714억원)
합 계	190,677	200,227	5.0% 증가



- ◇ 안정적 지방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추진  
 ◇ 시민주도 사회문제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혁신' 추진

□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6.8조원 증액 지원(46→52.8조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 접경지역 발전지원\*, 지역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지원 강화

\* 접경권발전지원 : ('18) 298 → ('19안) 377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 ('18) 250 → ('19안) 314억원

□ 시민참여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등 '열린혁신' 추진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마련 등을 지원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18) 50 → ('19안) 101억원

\*\*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 ('18) 70 → ('19안) 149억원

○ 민간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혁신창업 등 지원 강화

\*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 ('18) 300 → ('19안) 335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 및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드론 배달 등 신산업 추진 기반 조성

\* 전자정부지원 : ('18) 869 → ('19안) 901억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8) 33 → ('19안) 5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19안	비 고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467,439 (7,634)	535,571 (7,826)	· 지방교부세(459,805 → 527,745)
· 재정·금융	177,377	193,746	· 국고채이자상환(119,926 → 128,148)
· 일반행정 등	45,396	49,859	·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70 → 149)
합계	690,212	779,176	12.9% 증가